한국사 서평 ‘국가란 무엇인가’

21600685 조예성

책 제목 그대로 ‘국가’라는 것이 대체 어떠한 개념이고 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 애국심을 가져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하는 지를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이 책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마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24살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짜여진 제도 아래 공부를 해왔고, 대학을 왔고 군 복무를 마쳤다. 그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배운 것처럼 어떠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 북쪽의 공산주의를 물치지자 등 여러 사상적인 교육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사조와 인식들 속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 개인에게 어떻고 애국심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온전히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여전히 정부와 권력들의 부패는 만연하지만 옛 선배들처럼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물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우리들이긴 하지만, 과연 그 때의 그 맘처럼 열정에 가득할까… 그것보다는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취업이라는, 스펙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더 중요치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장벽을 내게 준 국가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리게 하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도 내 밥 하나 먹고 살기 힘들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하는 이 세대에게 과연 올바른 애국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일까…

물론 책에 나온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내가 한 국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단지 그 행위만으로도 다른 국가에서는 치열하게 노력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얻는다. 편히 밥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남으로서 갖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국가와 법이라는 체계가 없던 그 원시적인 시기부터, 한 개인에게 그 법과 권력을 전부 주는 시기를 넘어 이제 그 왕과 집행기관을 직접 국민이라는 자격으로 뽑아 그 국가라는 기구는 결국 개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침해하고 심지어 무력을 자행할 수도 있으면서, 그 정해진 법을 집행하여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시대까지 온 지금, 대한민국은 그 과정을 단 100년 이내에 급변하면서 그 시기의 짦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단’상태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똑 같은 상황에서 시작하여 지금 완전히 경제적으로 도태되어 있는 저 이북의 땅과 비교하면 불과 몇 100km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다고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는 어쩌면 국가가 요구하는 애국심과 의무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왜 ‘헬조선’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나라에 대한 애착이 없고, 심지어 정부나 국회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비난하면서 정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 좋아졌나를 가만히 고심해보면, 그것은 국가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부작용들을 결코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성장을 맞이하면서 여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제상황이 흘러갔지만, 그 속에서 무력하게 희생당한 개인들도 많이 있고, 기업들의 경제를 살리다보니 개인 노동자의 인권이 다소 유린되는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되었다.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좋은 지식과 인적 자본을 낳았지만, 학벌주의라는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의 큰 사조를 만들어냈다. 미친 듯이 공부해도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 좋은 직장의 노동자가 되어도, 그 앞날 앞길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불안감에, 아니 애초에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 시작부터 뒤쳐지는 그런 시대에, 왜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지고, 행복하게 살아지면서도 자살율이 세계 최고수준인지를 설명하는 좋은 이유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고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의 정도가 더 나아진다고는 100%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중요한 변수이긴 하겠지만,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보다 미시적인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 우리 정부나 수많은 경제기관, 교육기관, 사회 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러한, 급성장의 여파로 낳아진 여러 씁쓸한 사조를 고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애국심을 가지라고 강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이 나라의 청년들이 온전한 애국심을 가지게 될까. 그리고 개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군 복무를 할 때에도 수 많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정신 교육을 듣지만, 그것이 진정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일을 하고 후에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그 애국심이 유지되어 나라를 보다 더 질 좋은 사회로 만들게 될까…애국심이 없는 국민들로 구성된 나라는 결코 잘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정치참여율과 관심도가 현저히 낮은 현 상황 속에서,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할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여러가지 연구와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노력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물론 살기가 팍팍한 현 현실에서 단순한 애국심을 가지라는 것은 어쩌면 매우 동떨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나라에 관심을 갖는 개인이 많은 국가일수록 국가는 더더욱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개인들의 의견들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국가로 가는 것이다.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처럼,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정반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충돌의 관계와 도전과 응전의 단계가 없으면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 개인들의 의견들 속 가장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현재가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 문제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속히 뽑아내어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한다면, 분명 국가의 상황은 현재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나라를 살리려면, 좋은 애국심을 갖고 싶다면, 먼저 개인이 국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억지로라도, 아니 그럴만한 이유를 찾아서라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현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국가가 어떠한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그 국가가하는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아니, 나아가 한민족이라는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온전히 알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정계 내 여러 당들이 싸우는 것이 과거 조선의 붕당의 일면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현 정치계는 제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과거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입 등의 어려운 국가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온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몽골 침입과 두 차례의 왜란과 호란을 겪으며, 왕이 섬으로 도망가고 머리를 조아릴 때, 국민들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당시 지배계층의 수탈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이, 유교국가에서 탄압받던 승려들이 어떻게 같이 손을 잡고 나라를 지켰는지를 우리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나라는 단지 정치계 인사들의 손에 잡힌 것이 아닌, 국민들의 직접적인 관심과 애정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부도 해야 한다. 구한말, 우리 나라의 무지 속에서, 열강들은 서서히 우리나라를 잠식해 들어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나라는 열강들의 침입 속에 하나 둘 씩 먹혀 들어갔다. 우리가 외세의 흐름과 정세의 흐름에 무지하는 순간 나라의 경쟁력은 약화된다. 우리가 애국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야 나라가 더 내가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 것이다. 과거 역사는 어떠한 흐름이었는지를 올바르게 알고 거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세의 역사 흐름은 어떻게 전개되고 거기에 맞게 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지를 아는 것. 그것이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아가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도일 것이다.